

91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로타리클럽” 적극적인 봉사와 위성클럽 확대를 통한 성장



한국 최초로 세워진 “서울로타리클럽”은 올해 91주년을 맞이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공식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기에 서울을 방문하는 전세계 로타리인들이 즐겨 찾는 클럽이기도 하다. 서울로타리클럽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와 한국 로타리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유능한 총재들이 12명 배출되었고, 많은 로타리 클럽의 창립에 기여를 하였다. 초기때부터 백낙준 연세대 초대 총장, 장면 제4대 부통령, 오재경 문화공보부 장관, 구평희 LG 회장 등이 클럽 회장을 역임하며 클럽의 기틀을 잡았으며, 한국 로타리 클럽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원들의 평균 연령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SNS의 발달로 젊은 회원들의 수는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로타리 클럽에 들어가서 최신 정보도 얻고 좋은 만남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모임이나 단체도 급증하였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예전처럼 직접 안 만나도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로타리클럽은 현재 6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중에는 25세에서 35세로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



1지역대표 겸 사무부총장 **한태숙**
서울로타리클럽 전회장



는 서울영리더스 위성클럽, 젊은 직장인으로 구성된 “소셜비즈메이커” 위성클럽도 포함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 로타랙트, 외국어 대학 로타랙트를 후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오사카 클럽과 자매 클럽관계를 맺고 로타랙트들이 매년 양 국가를 방문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행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클럽의 홈페이지에 위성클럽의 홈페이지를 같이 구성하였으며, 페이스북을 강화하고, 로타랙트 임원은 물론 위성클럽 회원까지 함께 하는 카톡방을 유지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고 있다. 서울로타리클럽 이취임식에 위성클럽의 회원들이 참가하는 가 하면, 공동으로 봉사활동도 기획하고, 최근에는 매달 서울역 근처에서 활동하는 400여명 노숙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끝난 후에는 간단한 저녁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이화여대 로타랙트의 46주년 창립 기념행사가 있어서 회원들이 함께 참가하여 축하하여 주었다. 마침 로타랙트 선배들이 많이 참석하였기에 최근 국제 로타리 뿐만 아니라 3650지구에서도 로타랙트를 로타리 위성클럽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더니, 한 달 동안 로타랙트 선배들과 의견교환을 한 후 위성클럽 창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는 삶의 형태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클럽 역시 빠른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며, 젊은 회원들의 영입과 다양한 형태의 위성클럽 창립을 통한 회원 증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성로타리클럽 문화예술을 통한 클럽 활성화



한성RC 직전회장, 지구의전위원장 손미선



한성 로타리 클럽은 회원 88명, 위성클럽(한성위너스)23명, 총111명으로 구성된 클럽이다. 매주 목요일 오찬 모임으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45~55명의 회원들이 12시에 모여 30분 동안 다과를 나누며 그간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담소를 즐긴다. 한성은 주회 전 30분정도 티타임을 하는 '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다.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한성 로타리가 추구했던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매주 모이는 주회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이 있는 주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타이틀을 "기쁘고 흥겨운 주회, 즐겁게 봉사하자"로 정하고, 회원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는데 그냥 왔다가 식사만하고 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한성의 예술인들을 섭분 활용하여 매주 문화공연을 10~20분정도 개최하였다. 한성에는 음악가, 화가, 조각가, 도예가, 무용가 (발레,한국,현대무용) 체육인등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20여명 되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때때로 사회의 최고의 연주자들이 한성의 주회에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연주자들도 봉사로 가까이 연주하고 한성의 높은 음악적 수준에 만족하며 로타리를 배우고 갔다.

둘째, 최고의 회원영접

무엇보다 회원들이 주회장소에 들어오는 순간 최고의 영접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는 기분으로 만들자는 생각으로 10명의 사찰위원들을 뽑아 영접위원8명, 티타임관장 위원2명을 구성하여

브람스홀에 들어오는 순간 젊고 흰칠한 남녀 회원들이 사찰 띠를 매고 반갑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면 회원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입장하며 음악을 듣고 담소를 나눈다.

셋째, 야간주회, 연사주회, 야외주회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분기별로 야간주회를 실시하여 술잔을 나누며 주회때 나누지 못한 우정과 친목을 나누는 것은 회원들 간의 단합과 친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또한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나 시사등을 연사주회를 통해 공감하며 교류한다. 그리고 봄, 가을에 남산산책 야외주회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감사함을 몸으로 체감하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넷째, 봉사의 기쁨

로타리안에 있어 봉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봉사를 통해 회원들이 봉사의 즐거움을 알고 보람을 느끼며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한성은 안국동에 있는 "서울 시립 노인 복지관"에서 2,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배식과 설거지 봉사를 3년째 하고 있다. 11시부터 1시30분까지 설 새 없이 배식, 설거지, 잔반등을 치우려면 힘은 들지만 봉사 후에 먹는 주회음식은 꿀 맛 과도 같다. 봉사 후에 '여자만'이라는 한성식집에서 주회와 식사를 하고 맞은편에 있는 분위기 있는 전통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우정을 나눈다.

다섯째, 한성 장학금 지급

한성은 1년에 두 번 5명의 장학생을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하여 200만원씩 2,000여만원을 지급한다. 한성장학금은 한성의 뼈어놓을 수 없는 한성의 자랑이며 자부심이라 할 수 있다. 원로회원님들이 만들어서 수 십 년간 내려오는 한성의 전통이다.

여섯째, 재단기부

한성은 2017-18년 회기때 PHF를 50구좌 작성하여 52구좌를 달성하였다. 목표보다 2구좌를 더 추가하였다. 50구좌달성은 생각만 해도 부담스런 숫자였다. 하지만 장총식 전 총재님께서 '이순동 총재 공식 방문' 때 힘을 실어 드리자하여 50구좌 목표를 하셨습니다 회장이 나로선 어떻게든 무리 없이 목표달성을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자 과제였다. 난 매주 회원들께 주회참석 안부 인사를 드렸기에 궁리 끝에 신입회원들, 그리고 PHF하실 만 한 분들에게 전화를 하여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고 신입회원들에게도 PHF에 대해 설명해 드렸더니 의외로 너무나 긍정적으로 한 구좌 하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장총식전총재님께서 솔선

수범으로 큰 힘이 되 주셨고 40여명의 회원 들이 가까이 동참한 결과여서 더 의의가 크다 할 수 있겠다. 지금도 너무나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일곱 번째, 회장 총무, 임원들 간의 화합.

나는 회장직을 맡으며 여성총무인 박미영 총무와 참 호흡이 잘 맞았다. 여성들이어서 오히려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말 그건 우려에 불과했다. 우리 서로 의논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서로 불만 없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 회장, 총무가 일단 마음이 맞아 일하면 50%는 성공했다 할 수 있다, 거기에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한다면 못 할 일이 없다.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불가능은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그 결과 한성로타리 클럽은 최우수 클럽상을 비롯한 8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그리고 2018-19회기에 3,200여만원의 이익금을 넘겨주었다. 회장의 헌신과 회원들 간의 분위기, 공감대를 조성하면 3650지구의 그 어떤 클럽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제 한성로타리 클럽은 김무일 회장님과 함께 더욱 변화되고 150명 회원증강 및 3650지구의 최고의 클럽으로 모범이 되며 발전될 것임을 확신하며, 3650지구의 모든 클럽들이 장세호 총재님의 '행복하고 감동이 있는 로타리'표어에 함께 동참하며, 변화되는 로타리안이 되시길 기원한다. 🌻



한양로타리클럽 젊은 회원 영입, 한양-연세 로타리 위성클럽 창립



2지역대표 최경순
한양RC 직전회장

모든 로타리 클럽의 회장님과 임원분들은 로타리의 심장은 회원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2017-18년도 한양로타리 회장을 맡게 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회원유지와 회원증강을 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회원영입이 쉽지않은 않았다.

회원영입을 하며 어려움을 겪는 중 한양로타리에서 46년 동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연세로타렉트를 생각하며, 봉사경험이 있고 로타리정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로타렉트 출신이야말로 최적의 영입대상이라는 영감이 떠오르게 되었다.

저는 연세로타렉트 졸업인을 대상으로 이메일, 전화, SNS등을 통하여 연락하였습니다. 그들은 로타리의 훌륭한 정신에는 공감했으나, 현재는 바쁘다며 다음을 기약하였다. 저는 고심 끝에 계획을 수정하였고, 현재 학생들이 로타렉트를 떠나기 전 로타리안으로 영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 후 연세대학교를 수 차례 방문하여 로타리활동에 대한 경험담과 로타리클럽의 문화와 분위기를 들려주고, 식사를 나누며 로타리를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였다. 연고전과 MT 지원, 한양로타리 창립 62주년에도 학생들을 초대하여, 로타리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 등을 알렸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과 활동이 바탕이 되어 이들은 공감대를 보여줬고, 한양-연세로타리 위성클럽이 2017년 11월 12일 31명의 창립회원으로 탄생되었다. 그 후 3명의 신입회원이 추가로 영입되어 한양-연세로타리 위성클럽은 34명으로 증가하였다.

본 위성클럽의 탄생은 'Family Together' 지구 운영방침에 부응하여 차세대 청년들에게 로타리의 참여기회를 넓힘과 동시에 회원증강과 클럽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다.

한양-연세로타리 위성클럽은 차세대 로타리를 이끌 20대 젊은이들로 로타리활동에 참여하여 성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타 로타렉트 및 OB회원에게 좋은 전례가 될 것입니다. 비단 3650지구뿐만 아니라 한국로타리 역사상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지속적인 교류와 친교활동, 봉사활동의 공동수행을 통해 한양-연세 위성클럽회원들에게 로타리안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로타리가 세계적인 자원봉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원기반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2018-19년도 더욱 새로운 도전으로 세상에 감동을~초심으로 기적을 이룰 수 있기를 염원한다. ☺

서울무악 로타리클럽 클럽 5대 위원회 활성화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은 1995년10월27일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로타리의 최고 가치인 초아의 봉사를 실현하고 있다.

저희 클럽에서는 초아의 봉사 실현을 위해 회원의 증강, 참석을 항상 그리고 재정확보를 제1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봉사의 다양화, 시대 흐름에 맞는 강사 섭외, 소모임 활성화 그리고 5대 위원회의 월별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모임은 회원들의 주거지와 사업장별로 나누어 점심 또는 저녁에 유대강화 및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위해 모이고 있으며, 나이별로 3그룹으로 나누어 교류를 활성화하여 주회 참석률 향상과 회원 증강을 확대해 가고 있다.

5대 위원회의 운영은 연간계획에 따라 연 2달씩 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연사 섭외 및 저녁주회 그리고 특별이벤트 등을 주관하여 회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방식이며 회장단 역시 연 2달을 직접 운영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위원회별로 각종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여 참석률과 회원들 간의 유대감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차기 회기에는 위원회의 회원을 바꿔서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을 이해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서울무악RC 직전회장 강석건

